

인랑 vs 신과함께 vs 공작...3가지 지수별로 본 여름대작 3파전



인랑

감독/주연/제작사 김지운/강동원·정우성·한효주/루이스픽처스  
 순제작비 190억원  
 줄거리 통일준비 5개년 계획이 선포된 2029년. 통일 반대 무장테러 단체 '셋트', 대통령 직속 경찰조직 '특기대', 정보기관 '공안부'가 벌이는 암투.



신과함께:인과연

김용화/하정우·주지훈·김향기·마동석/리얼라이즈픽처스·텍스터스튜디오  
 350억원(1+2편)  
 1000년간 48명의 망자를 환생시킨 저승 삼차사. 이제 한 명만 더 환생시키면 이들도 환생 기회를 얻는다. 삼차사에 얽힌 1000년 전 비밀이 하나씩 드러난다.



공작

윤종빈/황정민·이성민·조진웅·주지훈/사나이픽처스·영화사월광  
 165억원  
 1993년 복핵 실제 파약을 위해 북한으로 잠입한 안기부 스파이 흑금성의 첩보전. 그리고 1997년 대선 직전 남북한 사이에 오간 은밀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

지옥, 다시 만나 반갑다... '신과함께' 아드레날린 팡팡!

무더위를 이길 최적의 장소, 바로 극장이다. 관객이 몰리는 피서철 극장가는 소리 없는 전쟁에 한창이다. '한국영화 빅3'의 흥행대결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25일 먼저 출발한 '인랑'에 이어 8월1일 '신과함께:인과연', 8월8일 '공작'이 개봉한다. 본지 영화담당 이해리 기자가 3가지 지수로 한국영화 빅3를 파헤쳤다. 얼마나 재미있고 흥미로운지(아드레날린지수), 이야기가 만드는 감동과 울림은 얼마나 큰지(몽클감동지수), 흥행의 필수요소인 입소문이 날 만한 작품인지(입소문지수)를 이해리 기자가 평가했다. 폭염이 가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금, 영화와 함께하는 '극장 피서'를 권한다.

아드레날린지수 ▶▶▶

1편 넘은 2편... '신과함께' 판타지 진수 보이다

● '신과함께:인과연'  
 90% 다시 만난 지옥이 이토록 반가울 수가 없다. 이미 1441만 관객이 인정한 1편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시 여러 갈래로 뻗어나간다. 원작 웹툰의 감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판타지 영화의 매력과 저력을 과시하는 자신만만한 작품이다. 다소 억지스러운 신파를 통해 관객을 눈물 쏟게 했던 1편의 아쉬움 역시 상당부분 보완됐다. 1편에 박한 점수를 준 이들이 더 반기는 2편. 저승 삼차사 강림(하정우), 해원매(주지훈), 덕춘(김향기)에 얽힌 1000년 전 과거 서사의 완성도도 상당하다. 솔직히, 보지 않을 이유를 찾기 어렵다.

● '공작'  
 70% 믿기지 않지만 실화다. 한국에서 벌어진 '진짜' 첩보전. 현실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한 리얼 첩보전이라 할 만하다. 물론 쫓고 쫓기는 추적전, 피 튀기는 총격전은 보기 어려운 작품. 익숙하게 봐 온 할리우드의 첩보극이 말초신경부터 자극하는 록밴드의 연주와 비슷하다면, '공작'은 서서히 달아오르는 진중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가깝다. 한반도가 평화 무드인 지금, 돌아보면 영화가 택한 1990년대 중반의 상황이 새삼스러울 정도로 낯설다. 실재했지만 쉽게 믿을 수 없는, 그 어색한 '공기'가 바로 영화의 매력이다.

● '인랑'  
 60% SF액션을 보러 갔다가 멜로영화를 보고 나온 기분이다. 시대가 만든 상처와 아픔을 겪는 인물들이라는 설정이 있지만, 특기대 요원(강동원)과 한때 테러단체에 몸담았던 여인(한효주)의 사랑은 어색하기만 하다. 멜로의 향이 짙은 탓에 다른 장점이 묻히니, 아쉬움은 배가 된다. 그래도 강동원과 정우성이 등장하는 장면에선 자동으로 '동공' 확장. "장르가 비주얼"이라는 김지운 감독의 설명처럼 두 배우가 무게 40kg의 강화복을 입고 나란히 선 모습은 CG를 의심케 할 정도로 완벽하다. 강동원 정우성 보는 것만으로도 돈은 아깝지 않다.

몽클감동지수 ▶▶▶

'인랑' 몽클감동지수 꼴찌...비주얼로는 엄지척

● '신과함께:인과연'  
 90% 이번엔 손수건과 티슈는 필요 없겠다. 1편 때처럼 눈물 쏟을 일이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동은 더 깊어졌다. 따뜻하고 또 따뜻한 이야기. 보고나면 마음에 존재하는 어떤 응어리가 사라지는 듯한 마법을 부린다. 잘못을 용서받기까지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인륜을 저버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삶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던지면서도 모든 걸 다정하게 감싸 안는다. 염라대왕과 삼차사의 비밀이 드러나는 마지막 장면에선 '스타워즈'의 유명 대사가 떠오르면서 '심쿵'하지 않을 수 없다. 나름 반전의 연속.

● '공작'  
 80% 진부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체제나 이념은 인간과 인간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운다. 남한 공작원(황정민)과 북한 고위간부(이성민)는 속고 속이는 상황에서도 끝내 상대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다. 신념으로 똘똘 뭉친 '아재'들. 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 내부 모습은 너무 현실적이고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 제작진이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 증인과 각종 자료를 조사하고 감수해 재현했다. 생전 김정일이 애견사랑에 각별했던 모습을 담은 장면까지도 실화를 바탕으로 구현했을 정도로 '리얼' 그 자체다.

● '인랑'  
 50%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세상에 등장한 디스토피아. 이야기, 메시지, 캐릭터, 비주얼까지 전부 차치하고 일단 왜, 하필, 2029년을 배경으로 했는지부터 의문이다. 불과 10년 뒤의 세상은 상상 가능한 범주에 있다. 지금과 비교해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지만, 영화가 택한 2029년은 혼돈과 암흑의 세상. 경제가 파탄 나고 무장테러집단까지 등장한 10년 뒤 한국을 선포 받아들이기 어렵다. 민중으로 상징되는 테러단체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공권력을 향해 먼저 총을 쏘고 폭탄 던지는 장면은 못내 불편하다. 시대를 향한 고민이 부족한 선택.

입소문지수 ▶▶▶

한국 첩보전 이거 실화? '공작' 입소문지수 톱

● '공작'  
 80% 실화영화만큼 다방면으로 입소문이 퍼질 수 있는 작품도 없다. 영화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부터 실존인물을 향해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확산되기 때문. 지난해 '택시운전사'가 그랬고 '1987'도 비슷했다. 이런 입소문은 흥행을 돕는 보너스 요소. 황정민이 연기한 안기부 스파이 흑금성은 1990년대 활동한 박재서 씨의 암호명. 영화가 개봉하면 어떤 식으로든 조명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작품보다 입소문이 절실한 '공작' 입장에서선 호재. 1997년 대선 때 일어난 북풍 사건, 북한이 거친 고난의 행군도 영화와 함께 다시 주목받지 않을까.

● '인랑'  
 70% 기·승·전 김지운. 그 이름을 향한 기대는 여전하다. 주인공 강동원부터 정우성 한효주 한예리 최민호까지, 출연한 배우들이 '인랑'을 택한 이유는 같다. 이구동성 "김지운 감독의 영화"이니까. 스타일리시한 비주얼의 설계자로 통하는 김지운 감독이 내놓는 새 영화를 향한 믿음은 관객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개봉 초반 반응이 썩 긍정적이지 않지만, 아직 김지운 팬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개봉 첫 주말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낸다면 입소문을 더한 장기 레이스도 기대해볼만 하다.

● '신과함께:인과연'  
 50% 사실 입소문 자체가 필요 없다. 1편을 본 관객 가운데 절반만 2편을 봐도 770만 동원은 거뜬하다. '신과함께'라는 제목 자체가 브랜드. 최악의 입소문이 '1편보다 재미없다'는 평가겠지만 이런 소문이 퍼질 가능성은 낮다. 시사회를 통해 가장 많이 얻은 반응은 '1편보다 낫다'였으니, 일단 안심. 염라대왕 역의 이정재와 귀인 수홍 역의 김동욱은 그야말로 '하드캐리'. 안 그래도 구멍을 찾기 어려운 영화는 두 배우의 내용까지 더해져 빈틈을 꽉 채웠다. 2편이 흥행한다면 그 성공은 이 정재, 김동욱의 공이다.  
 이해리 기자 gol1024@donga.com

물 들어올때 노 저어라...제작·투자배급사 '여름전쟁'

'인랑' 워너브러더스·'신과함께' 롯데엔터·'공작' CJ엔터 최대 성수기 여름시장에 대작 앞세워 자존심 건 승부

극장가 여름 대전의 포문이 열린 가운데 한국영화 기대작의 제작사와 투자배급사도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경쟁에 나섰다. 각 사는 연중 최대 성수기인 여름시즌 대규모 제작비를 투입한 작품을 통해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중요한 바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자존심을 내건 한판 승부를 펼친다.

25일 개봉한 '인랑'은 할리우드 직배사인 워너브러더스코리아가 최근작 '마녀'에 이어 또 한 번 흥행을 노리는 작품. 최근 2~3년 사이 공격적인 한

국영화 투자 및 제작에 나선 워너브러더스코리아는 '인랑'을 통해 제작비 규모 200억원이 넘는 대작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한국영화의 전반적인 제작 규모가 커져가는 상황에서, 대자본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자사의 국내 시장 영향력과 점유율을 높여 가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뒤이어 8월1일 선보이는 '신과함께:인과연'은 1편 '신과함께:죄와 벌'로 2003년 출범 이후 첫 1000만 관객 영화를 내놓은 롯데엔터테인먼트의 투자배급작. 전편에 이어 김용화 감독 연출로 다시 한 번 흥행 과녁을 겨누고 있다. '신과함께:인과연'은 특히 김용화 감독이 이끄는 CG 등 제작사 텍스터스튜디오의 영상기술력에도 크게 기대한다. 판타지물다운 스펙터클한 영상은 랩터와 티라노사우루스 등 공룡의 등장 장면이 이르러 제작사

의 뛰어난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 자사가 지닌 기술력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과 함께 향후 이 제작사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기도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배급사별 관객점유율 1위는 할리우드 직배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였다. '어벤져스:인피니티 워' 등 마블의 영화를 잇따라 선보여 2034만 관객을 동원해 21.1%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동안 집계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해왔던 CJ엔터테인먼트가 2위로 내려앉았다. 따라서 8월8일 개봉하는 '공작'은 CJ엔터테인먼트의 힘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로도 관심을 모은다.

CJ엔터테인먼트는 매년 여름 대규모 흥행작을 내놓았지만 지난해 '리얼'과 '군함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으로 자존심을 구겼다. '공작'의 내용상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과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가 얼마나 관객몰이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